

전북도 민선 8기 공모 526건 선정 '역대 최대'

산업·농생명·관광·교육 전방위 성과
국비 4조 9천 581억 원 확보
첨단산단·이차전지 등 신산업 확보
농촌기본소득·재해경비 생활기반
'PT 도지사' 김지사 발표 5건 선정

전북도는 민선 8기 들어 공모사업 526 건을 선정받아 4조 9천 581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지난 16일 도에 따르면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이라는 민선 8기 도정 비전 아래 산업, 농생명, 문화관광, 교육 등 주요 분야를 아우르는 공모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각 부서별 기획과 대응, 시군과의 협력, 정치권과의 공조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 성과를 달성했다.

공모사업 선정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 보면 산업 분야에서는 신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6,417억 원), 노후 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2,843억 원) 등을 포함해 산업단지의 첨단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다.

특히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369억 원),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342억 원), 산업특화형 괴지컬AI 선도모델 수립 및 PoC(389억 원) 등 미래 신산업 기술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

농생명사업수도 조성을 위해서도 청년농 임대형 스마트팜(306억 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193억 원, 남원) 등 농업 혁신 기반을 강화했고 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73억 원, 정읍),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105억 원, 익산), 지역혁신엔진(183억 원) 등 바이오산업에서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립후백제 역사문화센터(450억 원), 문화도시 조성 사업(360억 원) 등 역사문화 지원을 활용한 도시 정체성 강화, K-관광섬 육성(115억 원, 군산), 지역관광개발사업(142억 원)을 통해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을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정주환경과 도민 삶의 질 개선에도 상당한 실적을 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8억 원, 순창·장수), 농촌협약을 통한 생활권 단위 통합지원(3,711억 원),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3,701억 원) 등 이를 통해 생활 여건 개선, 재해 위험 해소, 균형발전 실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글로컬대학 30(4,620억 원, 전북대·원광대), 교육발전 특구(2,196억 원),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602억 원) 등 미래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인재 양성 기반을 확충해 나가며 전북의 지역대학들이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

다.
특히 김관영 도지사는 굵직한 공모사업에 직접 나서 총 8건의 발표평가 중 하계올림픽 국내후보도시, 이차전지 특화 단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 5건을 선정으로 이끌어냈다. 일각에서는 김 도지사의 이름바 '피티(PT) 도지사'라는 별칭이 등장할 정도로 현장 중심의 실질적 리더십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에도 미래산업, 탄소중립, 인구소멸 대응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98건, 13,823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발굴한 상태다.

도는 중앙부처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정치권 협력을 강화해 공모 선정률을 높이는 한편, 확보된 예산이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성과 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철태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국가공모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북의 산업 생태계를 바꾸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토대다"며 "도민과 함께 일군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이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정의 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임실

지난 16일 임실군청에서 열린 2026년 시군 방문에 김관영 지사와 심민 임실군수 및 참석자들이 하계올림픽 유치희망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사진=전북자치도>

전북 농수산식품 '7억불 수출' 도전...판로 다변화 총력

두바이 시작 해외박람회 10회 운영
美·日 등 거점유통 6곳 판촉 지원
바이어 초청·B2B 상담회 상시추진

전북도는 올해 전북 농수산식품 수출 목표인 7억 불 달성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판로 다변화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해외 박람회 참가, 거점 유통망 판촉, 바이어 초청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 체

계를 구축하고 도내 농식품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방위로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도는 세계 주요 식품박람회에 전북 홍보관을 운영하며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선다. 1월 두바이 박람회를 시작으로 모스크바, 도쿄, 상하이, 방콕, 뉴욕 등 주요 거점 도시에서 연간 총 10회 홍보관을 운영해 전북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집중 알릴 계획이다.

이미 확보된 해외 거점 유통망을 활용

한 실질적인 매출 확대에도 주력한다.

미국(H마트, 흠크필드 등)과 일본(한식련)

등 주요 권역별 유통망 6개소를 중심으로 현지 시식·판촉 행사를 추진하고 단순 홍보를 넘어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촉 비용을 직접 지원해 수출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한다.

국내외 바이어와의 접점도 적극 넓힌다. 중대형 B2B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개별 바이어 초청 상담을 수시로 진행

정강선 전북도체육회장 전북대 총동창회 공로상 '영예'



지난 16일 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2026 전북대 총동창회 시상식에서 정강선 전북자치도체육회장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사진 왼쪽에서 첫번째)

<사진=전북도체육회>

전주올림픽 유치 활동 주도 '성과'

전국 최초 체육영재선발대회 추진

전북 체육계 수장으로 체육저변 확대를 통한 내실을 꾀하고 있는 정강선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장이 공로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6일 도체육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2026 전북대학교 총동창회 신년 교례회·동문대상 시상식'에서 정강선 회장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정 회장은 전북대학교 체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정 회장은 민선 1, 2기 전북체육회장으로 전북 체육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현신·봉사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체육영재 선발대회 및 체육역사박물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며 체육계를 뛰어넘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북 전주올림픽 유치 활동을 주도, 서울을 따돌리고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되는 데 이뤄내 체육으로 전북의 자존감을 한층 드높였다는 평가다.

또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장으로 역대 최소 선수단을 이끌고 출전해 종합순위 8위를 달성, 국위선양에도 일조하는 한편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학교 체육을 동반 성장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대해 정강선 회장은 "고분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며 앞으로도 전북 체육이 한국 체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해 수출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특히 '농식품 수출 114' 현장 행정을 병행해 기업들이 겪는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도는 이러한 통합 지원 체계의 일환으로, 현재 '2026 농수산식품 무역사절단 파견'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무역사절단은 전북 농수산식품의 해외 전략 시장인 베트남(호치민)과 일본(후쿠오카)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별 10개사 내외씩 총 2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무역사절단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https://jbxport.or.kr>)에서 가능하다. 선정 기업에는 현지 바이어와의 1대1 비즈니스 미팅 주선, 상담장 운영 및 통역 지원, 참가자 1인당 항공료 50%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특히 KOTRA 현지 무역관의 사전 시장성 평가를 통해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 매칭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 축산산업국장은 "도내 우수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김제 시의회
GIMJE CITY COUNCIL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생각이 의회의 생각

The advertisement features a family of four (two adults and two children) looking up at a large, detailed map of a coastal city. In the top right corner, a large brush is shown painting a landscape with water and land. The text on the left side of the map reads: '김제 시의회 GIMJE CITY COUNCIL'. Below the map, the text reads: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veryone in the community, for a communication-oriented assembly that resonates with public sentiment, we will do our best). The overall theme is community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ance.

道, '임실 치즈 명품화' 본격…체류형 관광 키운다

16일 임실군 도민과의 대화 진행

치즈테마파크 605억 규모 보강

4성급 호텔도비 지원 숙박 확충

오수면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

전북도가 임실군과 손잡고 치즈산업 명품화와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에 본격 나선다.

도는 지난 16일 임실군청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 행사를 열고 임실군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관광숙박시설 확충과 오수의견관광지 조성, 테마파크 기능 강화 등 임실의 미래를 좌우할 현안들이 논의됐다.

도는 임실의 관광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605억 원 규모의 치즈테마파크 기능 보강 사업은 치즈아이랜드 조성과 농촌 테마공원 정비 등을 골자로 한다. 실내 짚라인과 트램플린, 클라이밍 시설 등이 들어서면 가족 단위 체류 수요를 끌어 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치즈테마파크 누적 방문객은 834만 명을 넘어섰고, 임실

N치즈축제는 지난해 61만 명이 찾았다.

섬진강 옥정호 일원에서는 제2기에 코뮤니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184억 원(도비 135억)이 투입된 이 사업으로 봉어섬 주변에 1.9km 수변데크와 420m 출렁다리, 3만㎡ 규모 주차장이 조성됐다. 2022년 10월 개장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방문객 175만 명을 기록하며 전북 동부권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다.

또 오수면 일원에서는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된다.

18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세계명견 아트뮤지엄과 펫케이션 숙박동, 야간 경관시설 등을 갖춘 반려동물 특화 관광지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개장한 반려동물 지원센터 오수 반려누리와 국민여가 캠프장은 운영 4개월 만에 이용객 2,100명, 동반 반려동물 740마리를 기록했다.

도는 임실군과 함께 숙박 인프라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임실군은 관광숙박시설이 2개소 15객실에 불과하고, 3성급 이상 호텔이 없어 방문객이 전주나 남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실정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



16일 임실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에 김관영 지사가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어르신과 교육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해 도는 치즈테마파크 내 4성급 관광호텔 건립에 도비 5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지상 6층, 104

객실 규모로 완공될 예정이며, 대회의식 등 컨벤션 기능도 갖춰 기업 행사 유치의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임실치즈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작업도 본궤도에 올랐다.故지정한 신부가 일군 임실치즈는 수입산과의 가격 경쟁에 밀리

고 있으며, 올해부터 유제품 무관세 수입까지 시행되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에는 저지종 육성단지와 유가공 공장, 체험관광단지 등이 들어선다. 도는 지구 지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5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도 임실군과 적극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명절 성수기 앞두고 축산물 특별 위생점검

오늘부터 내달 6일까지 290곳 대상

식육·포장육 등 50건 수거 검사

표시기준·소비기한 등 집중 확인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명절 성수기를 맞아 축산물의 생산·유통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다.

이번 점검은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되며, 축산물가공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 도내 290개소가 대상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0여 명이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식육과 포장육, 햄세트 등 축산

물에 대해 위생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 50건을 수거해 시중독균 오염 여부와 부정 축산물 유통 여부에 대한 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화농·이불 등 이상 부위 제거 및 폐기 여부 ▲보존·유통 기준과 알레르기 표시 등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의 적정 처리 여부 ▲포장육 및 선물세트의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위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자치도 “전주·완주 통합도 광역급 인센티브 줘야”

도, 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환영”
“통합 시 자립적 권역 중추도시 형성
재정·제도 광역급 뒷받침 필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정부가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함에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3특) 내 행정통합을 통한 중추도시 형성에도 그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대규모 재정지원 제공을 발표했다. 동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도 퍼기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5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특별자치도(3특)로서 광역과 기초 사이의 새로운 통합 모델을 제시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단순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 아닌, 3 특 내에서 행정통합을 통해 중추도시를 형성하는 차원의 통합인 만큼 광역 통

합에 준하는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는 전주시와 완주군이 실질적인 생활·경제권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양 시군의 통합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는 광역시에 벼금가는 전북권 중핵도시로서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중추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도심·배후도시 간 기능 연계가 강화되면 전북 전역의 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4년 6월 완주군민들이 관련 법의 절차에 따라 통합건의서가 제출되면서 시작된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전북 전체의 성장축 재편과 정주여건 개선, 혁신성과

업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라고 평가된다. 특히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자립적 권역 형성의 시금석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완주와 전주의 행정통합 논의는 전북의 미래 성장 전략을 완성하는 열쇠이며 실질적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3특으로서 광역 통합과 기초 통합 사이에서 중추도시 형성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초자체 간 자발적인 통합이 성공하려면 광역단체 뒷지 않은 재정적 인센티브와 법적 제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전북은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道, 순창군 생활 인프라 재정·행정 지원 강화

‘기본소득’ 도비 292억 투입

군도21호선 10억 지원

의료공백 해소 지원 확대

전북도는 지난해 16일 오후 순창군민 예술회관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2026년 시군 방문’ 행사를 열고 순창군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청사진을 밝혔다. 이번 자리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비롯해 도로 인프라 개선, 농생명산업지구 조성 등 순창군의 미래를 이끌 사업들이 나왔다. (관련기사 8면)

순창군은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서 전국 10개 시범지역 가운데 하나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다음 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회폐로 지급한다. 도는 292억 원의 도비를 투입하며, 국비 389억 원, 군비 292억 원 등 총 973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만으로는 실거주 여부를 충분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3개월간 모니터링을 거친 뒤 소급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도의 지원이 이어진다. 순창~전주간 국도 27호선에서 인계면 심초마을로 이어지는 군도 21호선은 급경사와 불량한 선형, 좁은 도로 폭 헛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순창군은 2023년부터 총 680억 원을 들여 1.16km 구간을 폭 8m로 넓히는 확포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사업비 일부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됐다. 이 /김은지 기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AI 미래운동회’ 개최

AI기술 활용 인공지능기술 체험

통해, 인공지능 기술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생생형 AI 기술을 활용한 ‘창의 콘텐츠 대회’도 열린다. 가족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해 영상·이미지·음악 등 창의적인 AI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문가 특강을 통해 AI 기술 활용 방법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행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AI·XR 등 신기술과 신체활동·놀이 요소를 결합한 ‘피지컬 AI(Physical AI)’ 기반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도민의 AI 이해도를 높이고,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장에서는 ‘AI 미래운동회’가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AI 비전 인식, 모션 트래킹 등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형 미션과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김은지 기자

겨울철 안전운전을 위해 알아야 할 도로표지판



시·전주문화재단·한국예술종합학교 '미래문화 콘텐츠' 개발

16일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통문화 기반 미래문화 콘텐츠 공동 개발 추진

전주시와 (재)전주문화재단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공적인 추진과 전통문화 기반 미래문화 콘텐츠 육성을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손을 맞잡았다.

시와 (재)전주문화재단·한국예술종합학교는 지난 16일 전주시장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최락기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심규하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디자인과장 등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 역량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통문화에 미래형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개발과 확산을 도모하고, 문화도시 전주의 중장기 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전통문화 기반 융합예술 콘텐츠 개발 및 확산 △미래문화 분야 공동 이슈 발굴 및 연구 수행 △포럼·심포지엄 등 학술행사 개최와 학술 정보 교류 △기타 상호 협의에 따른

협력사업 추진 등에 대해 적극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보유한 예술 창작·연구 역량과 전주문화재단의 지역문화 기획·운영 경험, 전주시의 행정적 지원이 결합되면 전통문화의 현대적 해석과 미래문화 콘텐츠 구현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넘어 미래문화 창작과 유통, 소비가 이루어지는 문화생산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동시에 시는 앞으로도 문화예술 전문 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미래문화

콘텐츠 발굴과 문화산업 기반 조성에 힘쓰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그간 전통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전주가 전통과 미래를 잇는 문화 실험의 장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각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최신장비 '환자중심 영상센터' 개소

최첨단 장비 정밀진단 역량강화

영상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1번 영상검사실에는 FPD(Flat Panel Detector) 검출기를 탑재한 2-Tube Stand & Table 시스템의 최첨단 의료장비를 도입했다. 이 장비는 환경과 동시에 영상을 직접 디지털화해 고해상도 영상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으로,

기존 장비보다 미세 병변까지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진단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영상센터 구축사업은 최고

수준의 영상진단 인프라를 통해

진단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고, 환

자 편의성과 검사 효율성을 동시

에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영상센터 1층에서 진행된 개소

식에는 양종철 병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과 영상의학과 직원들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

본관과 호흡기질환센터 사이에

위치한 영상센터에는 영상의학과

일반 영상검사실 7실이 조성됐으

며, 총 7대의 최신 검사 장비가 설

치됐다. 투시장비, 골밀도 검사장

비, X-ray 장비 등 다양한 장비를

집약적으로 배치해 검사동성을 효

율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정소민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복합스포츠타운' 현장 점검

현장 관계자 안전사고 당부 야구장·육상경기장·실내체육관 건립 순항 65% 공정률 기록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6일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전주시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통해 △전주야구장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국제수영장 △스포츠기자센터 등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까지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건립사업은 65%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 사업비 1421억원이 투입됐다.

652억원 사업비 투입되는 실내체육관 역시 40% 공정률을 보이며 순항을 보이고 있다.

우 시장은 이날 공사 현장 관계자 노고를 격려하며 안전사고를 특별히 당부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야구장·육상경기장·실내체육관 부지는 어느덧 골조 공사가 완료됐다.

우 시장은 건립 구상 초기 타당성 조사나 중앙투자심사 단계에서 프로야구단이 없는 현실과 실제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향후 프로야구단 유치 등 여건 변화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관람석 증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시는 실내체육관 옆에 들어서게 될 호남권 전주스포츠기자센터에 대해서는 올해 관련 국비 2억원을 확보해 기초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

역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순차적으로 건설 예정인 국제수영장도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내 복합스포츠타운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적토마처럼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2027년에는 명실상부 복합스포츠타운의 위용

을 갖춰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는 물론, 시민 체육 여가생활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배 '2026년 베트남' 전역에 공급

농산물 공동브랜드 '전주한옥애뜰' 공식 출범 이후 첫 수출 '주목'

지난해 전주산(産) 농산물 동남아 수출이 호조세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전주에서 생산된 배가 베트남 전역에 공급된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은 한국산 배를 맛과 품질이 우수한 프리미엄 과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주산 배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전주한옥애뜰'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판촉 행사를 확대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전주산 배의 첫 수출지는 베트남으로, 전주지역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전

주한옥애뜰'이 공식 출범한 후 이뤄진 첫 번째 수출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날 선적식에서 참석자들은 전주배 1080상자(16.2톤)의 베트남행 선적을 격려하고,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은 한국산 배를 맛과 품질이 우수한 프리미엄 과일로 인식하고 있으나, 전주산 배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전주한옥애뜰'을 통해 베트남 현지에 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판촉 행사를 확대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한옥애뜰은 지난해 11

월 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브랜드 통합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주시에서 만든 농산물 브랜드이다.

시는 한옥의 품격과 전주지역 농가의 정성,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사랑을 담은 이 브랜드를 많은 소비자들이 만날 수 있도록 국내·외 기반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는 전주시 농산물의 국내·외 판

로 확대를 위해 지역농협과 전주시조합 공동사업법인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뉴질랜드로 전주에서 생산된 쌀과 가공식품을 처음으로 수출하는 등 농산물 판로 개척에 힘써왔으며, 그 결과 총 708톤, 15,150만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장은 “전주시 농산물이 수출길에 오를 수 있도록 어려운 영농환경에서도 힘써주시는 농가분들과 국내외 농산물 판매에 매진하시는 농협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제값 받는 전주시 농산물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의△계약 체결 시 계약서 필수 수령 및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개인 정보 요구 시 수집·이용 목적 확인 등의 예방법을 다양화 흥보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흥보 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가족이나 주변인과 충분의 상의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 철회 기간 등을 확인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방문판매업 위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전주시(완산구청 063-220-5353, 덕진구청 063-270-6352, 민생사회적경제과 063-281-2373)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소민 기자

2026년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노인공익활동사업' 발대식 실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지회장 홍성언)는 지난 16일 노인공익활동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우범기 시장 등 주요 내빈과 노인공익활동사업 참여자 11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교육을 포함해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성황리에 이뤄졌다.

발대식은 송민주 사무국장 사회로 진행됐다.

전주시노인회는 노인공익활동사업 1275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노인역량활용사업(276명)은 50명이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노인역량활용사업은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안전사고 사전예방 활동 및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시니어안전모니터링 지원단을 대폭 확대하여 안전한 노인 일자리 참여와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지역사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홍성언 지회장은 대회사에서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어르신이 지역사회에 당당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이어가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오랜 경험과 지혜는 전주시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라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는 물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만큼, 참여자와 수행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하를 보내주었다. 김관영 도지사는 “어르신들의 활기찬 참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귀한 에너지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삶의 힘을 되찾고 지역사회에 소중한 지혜와 경험을 나누시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시의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주시의회에서도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환경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특별점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언)은 지난 16일 06시부터 21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관심)가 발령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섰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mu\text{g}/\text{m}^3$ 를 초과하고 다음날에도 초과가 예상될 때 시행되며, 전북지역은 올겨울 들어처음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조정하고, 공사장은 공사시간·변경·조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은 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산업단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 인력을 투입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100억원 이상 관공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및 노후건설기계 사용여부 점검, 지자체 집중관리도로 관리실태 점검 등도 실시한다.

김호언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전북도 내 사업자와 주민들께서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청 여성청소년 현장 지원, 안전 점검·교육 실시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최근 현장 관계성 범죄

전기안전공사 ‘사람존중 열린경영’ 연찬회 개최

국정과제에 발맞춘 전략 실행 다짐 재생에너지 전기안전 AI 활용 활성화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15~16일 양일간 정읍 소재 전기안전인재개발원에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는 CEO 등 임원진과 본사 차·실·원장 및 사업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대국민 전기안전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연찬회는 지난 한 해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추진사항 공유, 전문가 특강, '26년 현안사항과 본부별 업무추진계획 발표 및 토론회로 구성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26년 전기재해

감축 대책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 △신규 검사업무 효율적 운영 방안 △전기안전 AI 활용 활성화 추진 방안 △본사 및 사업소 조직개편 방안 △현장 종결형 업무처리 방안을 아우르는 폭넓은 논의뿐 아니라 건강한 노사관계 조성, 현 정부 공공기관 정체방향에 대한 강연으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남화영 사장은 “연찬회를 통해 ‘사람 존중 열린경영’이라는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검사업무처리 개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혁신 등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현장 효율과 국민안전 수준을 동시에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15~16일 양일간 정읍 소재 전기안전인재개발원에서 연찬회를 개최했다.

전북경영인조합장협의회, 정기총회 열어

“희망농업·행복농촌 구현 위해 적극 지원”

전북경영인조합장협의회(회장 허수종, 샐골농협 조합장)는 회원조합장 20명과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 결산 승인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북경영인조합장협의회 회원 일동은 급변하는 농업·농촌 환경 속에서 지역농축협의 역할

과 책임을 재확인하고 농업인 실의 중심의 경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

허수종 회장은 “전북농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경영인조합장들이 중심이 돼 농업인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농협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경영인조합장협의회가 지역농축협 간 소통과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중심, 현장중심의 농협 구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경영인조합장협의회는 회원조합장 20명과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정기총회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전북TP ‘2026년 선도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지원프로그램 등 안내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가 도내 선도기업 및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2026년도 지원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지난 15일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및 혁신기업의 대표 및 실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테크노파크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2026년 전북 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운영 안내 △신규 선도기업 및 혁신기업 신청서 작성 등 내용 설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지원프로그램 지원 및 수행 방법 △기술개발(R&D) 및 자율프로그램 등 세부사업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전북테크노파크는 기업들이 변화된 지원 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6년 지원프로그램 안내와 개편된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했다.

이종한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역 경제의 핵심인 선도기업 및 혁신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리”며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를 통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전북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가 도내 선도기업 및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및 혁신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지난 15일에 개최했다.

농식품부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

TF팀 구성 착수 회의 적용 가능 과제 발굴나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지난 15일 착수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농식품부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에서 농·임업인의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또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계기관·부서별로 추진되는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농림분야 안전관리 TF’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을 단장으로 5개반(총괄·제도반·농기계안전반·취약계층

인력안전반·시설·기반안전반·임업안전반)으로 구성하고 각 반별로 ‘점부’, ‘공공기관’, ‘전문기관’과 함께 농·임업인 단체도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TF 운영을 통해, 분야별 안전관리 현황과 기준 대책을 분석해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과제를 선정해 3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인 단체 등의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농림분야 안전관리 TF’ 단장인 강동원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이번 TF는 농림업인 및 농림 종사자의 사망·사상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행정적 차원의 개선뿐

가겠다”고 밝혔다.

아니라,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나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 축산물 위생·안전 특별점검

설 명절 대비 내달 11일까지

농축협 축산물 사업장 점검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은 설 명절에 대비해 다음달 11일까지 농·축협 축산물 사업장에 대한 특별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축협은 수시 자체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본부에서는

20개소 이상 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지도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이력번호, 원산지표시사항, 폐기물 관리 및 축산물과 작업장의 위생상태, 냉동·냉장육 보관 및 관리상태, 위생복·위생모착용규정 이행 철저, 위생교육 수료증 및 보관증 확인, 삼겹살 품질관리 등이다.

김성훈 본부장은 “설 명절을 앞두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몽골과 의료 협력 확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몽골 초그트체츠 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제 의료 협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약속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본원 3층 온고을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지난 10월, 몽골 남고비 주 초그트체츠 군에서 전북대병원을 직접 방문해 시설을 견학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협약식에는 몽골 초그트체츠 군 다얀도르지 바트투브신(Dayandorj Battuvshin) 군수 등 21명이 참석했으며, 전북대병원에서는 양종철 병원장을 비롯해 유인천 국제진료센터장, 김소은 대외협력부실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증 질환 환자 진료 및 최우선 의료 서비스 제공 △현지 의료 인력 역량 강화

/정소민 기자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전문가 컨설팅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진흥원)은 오늘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영’, ‘기술’, ‘마케팅’ 등 기업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컨설팅 신청을 시작한다.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은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경영 애로에 빠르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분야는 △경영전략 △인사·노무 △세무·회계 △기술지원 △마케팅 △판로개척 등 총 14개 분야로 구성된다.

기업별 애로사항에 맞춰 전문 컨설팅

/정소민 기자

'2026년 전북교육 자체감사 계획' 수립

전북교육청, 소통 참여
공정·투명 비전...감사원
성과향상기관' 선정

전북교육청이 '2026년 전북교육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 했다.

전북교육청의 '2026년 전북교육 자체감사 계획'은 △소통과 참여 △공정하고 투명한 전북교육 비전이 목표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현장 지원 중심의 사전예방 감사 △자율적 내부 부파통제 시스템 강화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 및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둔다.

종합감사는 감사주기(3년) 및 기관(학교) 규모를 고려해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각급 학교 등 총 53개 기관(학교)

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특히 학교 스스로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 학교업무 전반 감사와 자율적 시정·개선하는 '학교자율형 종합감사' 희망학교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외 '특정감사', '복무감사', '민원·사안 조사', '사이버감사' 등 다양한 유형의 감사를 병행해 감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감사원이 실시한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감사원 표창을 수상했으며 '성과향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 감사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연수와 기관 및 학교의 눈높이에 맞춰 예방감사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종합감사는 감사주기(3년) 및 기관(학 교) 규모를 고려해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각급 학교 등 총 53개 기관(학교)



전북교육청이 '2026년 전북교육 자체감사 계획'을 수립 했다. 전북교육청의 '2026년 전북교육 자체감사 계획'은 △소통과 참여 △공정하고 투명한 전북교육 비전이 목표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동계스포츠 교육 기반' 구축

스키 선도교원 연수 운영
동계스포츠 교육 체계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중심 '동계스포츠 교육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오늘부터 오는 23일까지 무주 덕유산리조트에서

'2025년 동계스포츠 활성화 위한 스키 선도교원 연수'를 2기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은 동계스포츠 활성화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 → 학교 중심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참여 확대 선순환 구조가 목적이이다.

특히 학교가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동

계스포츠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수에서는 14개 각 시군에서 선발된 초·중등 선도 교원 40명을 대상으로 스키 실기 지도 및 안전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선도 교원들은 단위 학교에서 학생 대상 △동계스키 캠프 △현장체험학습 △

진로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하는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선도교원 네트워크 운영과 현장 적용 사례 확산을 통한 동계스포츠 교육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 인프라 연계한 학생 중심 학교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선수단, 동계체전 쇼트트랙 메달 사냥 성공

노아름 금메달
김이현 은메달 수확

제107회 전국동계체전에 출전한 빙상 선수들이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는 등 전북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2월 25~28일에 펼쳐지는 전국동계체전을 앞두고 사전경기로 빙상 종목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스피드에 이어 쇼트트랙에서도 메달을 추가 확보했다.

강원도 춘천에서 펼쳐진 빙상 쇼트트랙 여자 일반부 1500m에 출전한 노아름(전북도청)은 2분29초141를 기록, 금메달을 목에 걸며 최정상에 올랐다.

또 여자 대학부 1500m에 나선 김이현(한국체대)도 3분07초684를 기록하며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다.

이날 메달을 추가하면서 빙상에서만



제107회 전국동계체전에 출전한 빙상 선수들이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는 등 전북 선수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김이현(왼쪽), 노아름(오른쪽)

현재까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확보한 상태였다.

/장정철 기자

국립군산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혁신 IR시스템 구축

지난 15일 국립군산대학교는 'IR시스템 구축 중간보고회 및 사용자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8월 착수한 IR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현황과 교직원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와 관련해 데이터 기반 대학 경영 혁신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국립군산대 IR시스템은 행정 효율화와 과학적 분석을 핵심 층으로 설계됐다.

성과분석에서는 '학사', '연구', '산학협력', '입학', '취업'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77개 영역 데이터를 통합한 데이터 웨어하우스(DW)와 데이터 마트(DM) 구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핵심 경영 지표에 대한 다각적 분석이 가능해졌다.

국립군산대는 이달 말부터 IR시스템 시범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이는 지난해 입학생보다 691명 감소로 확인됐다.

2026 입학생 인원 감소에는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회적 인구소멸 관계에 따른 이유로 집계됐다.

배정 확인 결과는 전주교육지원청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학생들은 해당 초등학교 개인별 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오는 20일부터 배정받은 중학교 예비소집일에 참여해 입학 안내를 받아야 한다.

/김영태 기자

'2026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진학대상자' 배정

총 6153명 확정

전주시 중학교 진학대상자 총 6153명 배정이 확정됐다. 지난 16일 전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전주시 중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2026학년도 중학교 배정 결과 1지망 배정률은 93.39%로 전년도 보다 2.3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지망 배정률은 99.77%로 전년도 0.27%p 증가했다.

2026 전주 중학교 진학대상자는 6153명으로 파악됐다.

/김영태 기자



<사진=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호서대 방문·초청 강연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창업거점 대학교'를 내용으로 초청강연을 한 뒤 반도체 교육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5국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죽인 지역대학·청년·산업의 역할을 공유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생태계 구축 방안을 현장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강연에서 "지방의 경쟁력은 도로·산단 같은 물리적 인프라 확충 만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며, "대학을 중심으로 인재를 키우고, 인재가 창업과 산업으로 이어지며, 다시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때 지방이 국가 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호서대학교가 추진 중인 산학협력·창업 성과를 언급하며, 대학이 지역 혁신의 실행 주체로 자리 잡는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실리콘밸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학·기업·지역 환경을 직접 들여봤다.

대학의 패키징·테스트 장비와 클린룸 등 현장 중심 교육 인프라를 들여온 김 위원장은 "지역 산업 수요와 연계된 실무형 인재 양성 모델이야말로 지역대학의 경쟁력"이라며, "이러한 교육 인프라가 지역 산업과 결합할 때 산업 경쟁력도 함께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5국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지역대학이 인재와 기술, 창업을 연결하는 혁신의 거점이 될 때 비로소 현장에서 작동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도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겨울철 독감 생활 속 예방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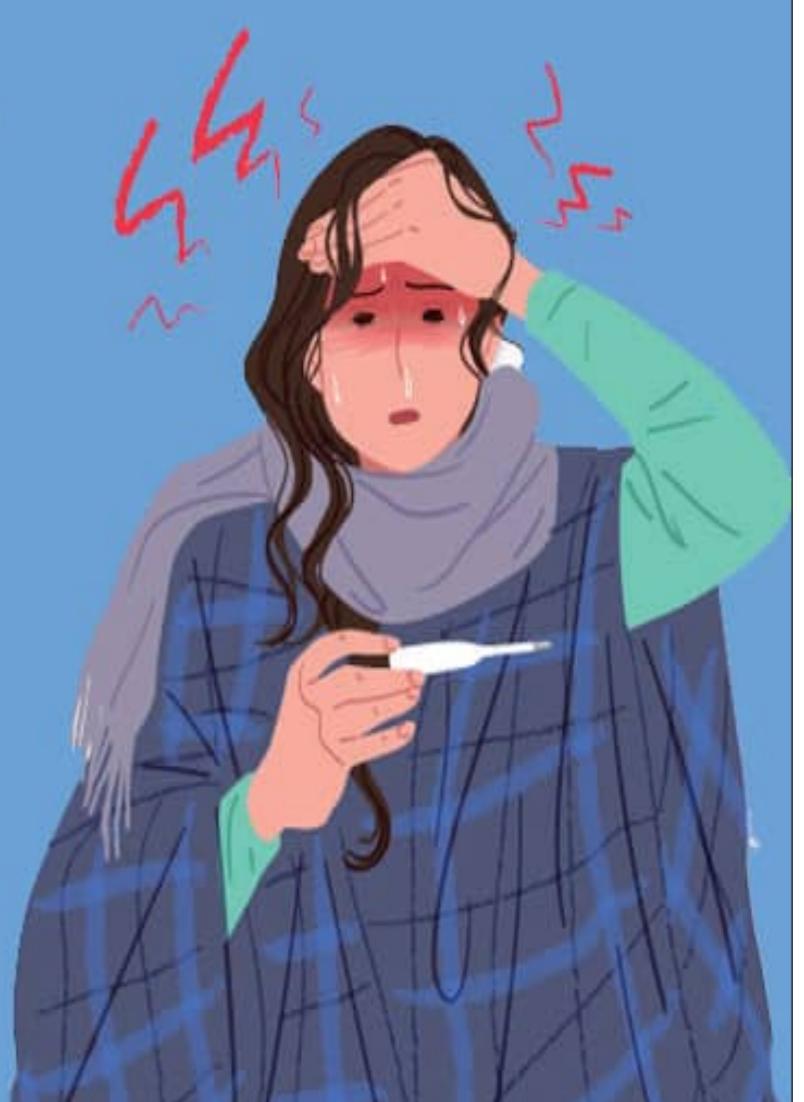
올바른
방법으로
손씻기

실내 습도
40~60%로
유지 하기

손으로 눈, 코
입등 만지는
습관 자제하기

과로는 피하고
충분한 수면
취하기

균형잡힌 식사로
면역력 높이기



익산시, 슬레이트 철거 지원
다음달 13일까지 신청

익산시가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주택·부속건물 지붕의 경우 철거는 최대 700만 원, 개량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창고·축사 지붕은 슬레이트 면적 기준으로 2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 초과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지붕 개량 시에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2026년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 신청 접수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홍순)가 2026년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새로운 영농기술을 신속히 보급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6년 시범사업은 경쟁력 있는 군산농업 육성을 목표로 5개 분야 22개 사업에 총 13억 2,900만 원을 지원하며, 2월 13일까지 각 읍·면·동 농민상담소를 통해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세부 시범사업은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1개 사업 △청년농업인 영농활동 기반조성사업 등을 포함한 농촌 지원 분야 5개 사업 △특수미 생산·기공단지 조성 시범 등을 포함한 산불환경분야 7개 사업 △바과채소 2기작 재배 작형 발굴 시범사업 등 소득작목분야 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박홍순 군산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군산농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기술 도입을 통해 농업 경쟁력과 소득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농업 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6개국 청소년·평화의 꿈 탐방단 오키나와 여행 성료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6개국 청소년 22명이 '평화의 꿈 탐방단'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일본의 오키나와에 방문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여정을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산시와 군산교육발전 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문화탐방'의 특화사업으로 마련됐다.

탐방단은 본 여정에 앞서 6회에 걸친 사전 프로그램을 통해 유대감을 쌓았다.

군산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지구시민교육을 통해 인권·환경·평화의 가치를 학습했으며, 오키나와 현지에서 선보일 퍼포먼스를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며 탐방의 주체로 참여했다.

지난 14일 오키나와 현정 앞 광장에서는 대금과 가야금 등 국악의 선율이 울려퍼졌다.

중국·베트남·필리핀·태국 등 서로 다른 국적의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처음 배운 전통악기를 연주하며 만들어내는 국악 선율에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은 잠시 밤걸음을 멈추고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항근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편견 없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현율 시장 '익산 치킨밸트' 건의

송미령 장관에 "산업 기반 완벽...정부 구상의 최적 파트너"

이재명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치킨밸트 사업에 익산시가 손을 들고 나섰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지난 15일 정책 점검차 익산을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치킨밸트' 조성 사업과 관련, 익산시를 모델도시로 지정해 줄 것을 강력 건의했다.

지난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K-미식밸트를 기준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중 '치킨밸트'를 포함한 미식밸트 신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건의는 익산시가 보유한 독보적인 인프라를 바탕으로 치킨밸트 지정의 선제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정 시장은 이날 송 장관에게 "익산은 국내 최대 닭고기 기업인 하림 본사가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사육부터 가공, 유통, 물류에 이르기까지 닭고기 산업의 전 과정이 한 도시 안에서 완결되는 전국 유일의 산업 생태계를 갖춘 곳"이라며 익산이 정부 치킨밸트 구상의 '네이스캠프'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부가 이번 치킨밸트 사업에서 '단순 판매'를 넘어 지역 명소와 연계한 '체험·관광 상품화'를 핵심으로 내세운 만큼, 익산시가 이미 민간 참여로 조성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청년기업 인증제' 시행

체계적 성장 지원...내달 28일까지 참여 기업 모집

정읍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 사업가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돋기 위해 올해부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한다.

시는 '청년기업 인증제'를 전격 도입하고 내달 28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상대적

으로 자본력과 경험이 부족한 초기 청년 기업에 시가 공신력을 부여해 대외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본점을 둔 중소 기업으로, 대표자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전체 상시 근로자 중 청년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최종 인증 기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 간 자격이 유지되며, 기업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시내버스 노선체계 맞춤 개편 추진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 개편 중간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내버스 노선체계 전면개편 수립 추진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민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한 목적별 노선체계 개편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대중교통 정책 자문위원회 위원, 운수업체 관계자, 관계 부서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노선 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군산시는 이번 노선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지난해 6월 시내버스 노선 개편 설문 조사를 통해 총 2,437건의 시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9월부터는 시민참여단을

운영해 총 3차례 리빙랩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노선을 설계하고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아울러 군산시는 시내버스 승·하차 데이터, 생활인구 데이터,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분석 자료 등 다양한 교통·생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이동 수요와 지역별 특성을 분석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선 중복과 굽곡을 개선하고, 통근·통학·읍·면·관광 등 목적별 이동 특성에 맞는 노선체계를 설계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이 같은 분석과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지간선제기반의 노선체계 개편안이 제시됐다.

먼저 군산·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통근 노선은 도심과 산업단지를 빠르게 연결하는 가로형 급행 노선 구축이 핵심이다.

도심권~새만금북로~산업단지(비음

향)를 연결하는 급행 간선노선을 운영하고, 오식도동 등 산업단지 내부 주거 지역과 근로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산단 내부 세로·분산형 DRT 3.0 서비스 도입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중·고등학생 통학노선 및 도심권 순환노선은 주거 밀집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20분 배차의 순환형 노선체계를 통해 등하고 시간을 단축하고, 혼잡 시간대 버스 내 밀집도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심권 이동 편의를 위한 소룡~수송·미장~조촌~월명동을 연결하는 동서축 순환노선과 미룡~나운~월명~경암~수송동을 잇는 남북축 순환노선 도입 방안도 제시됐다.

김영민 부시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노선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농업 미래 키운다...농촌지도사업 본격화

48억 투입 인력육성 등 5개 분야 50개 사업 운영

익산시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촌지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익산시는 올해 농촌지도사업에 참여할 농업인을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농촌지도사업은 △인력육성 △농촌지원 △귀농귀촌 △식량작물 △소득작물 등 5개 분야 총 50개 사업에 약 48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사업은 청년농업인 드론 지원과 벼 직파재배 단지 조성, 기후 변화에 대응한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둘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농산물 활용 가능성과 청년농업인의 영농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지원도 추진된다. 서동마와 생강 등 지역특화 소득작물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한다.

시는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인 지원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했다.

농촌지도사업 신청 대상은 개별 사업 기준에 맞는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농업법인이다. 국비 사업의 경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

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돋려하기 위해 익산사랑장학재단과 나눔 공간에 기부활동을 했거나 자원봉사자, 수상자에 대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시는 현지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오는 2월 개최되는 농업산학 협동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농촌지도사업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했다"며 "이런 시범 사업들이 익산 농업의 초석이 돼 봄바른 농업 잘사는 농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노후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저감 유도

군산시가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10%를 감면해준다.

고지서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연납이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율은 5%로 줄어든다.

연납 신청은 납부 기한인 2월 2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군산시청 기후환경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고지서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연납이 인정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익산시, 2026년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익산시가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지원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간다.

익산시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026년 드림스타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는 기본·필수·맞춤서비스 39종으로 구성된 종합 지원체계를 운영하며, 아동과 가족 구성원의 육구와 상황, 위기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기본 분야에서는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아동과 가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필수 분야로 △건강검진 △아동 6대

교육 △부모상담 등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12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 분야는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신체건강 △인지언어 등으로 이뤄진 4개 항목에서 △밀반찬 지원 △언어치료 등 26종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맞춤 분야 서비스에서 가족 지원 기능을 강화한 신규 프로그램으로 '가족운동회'와 '부모 힐링 활동'을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 개인의 성장과 지원을 넘어 가족단위의 정서적 안정과 지원체계 강화에 초점을 둘 것이다"며 "이를 통해 아동 성장의 기반이 되는 기정환경을 더욱 탄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16억 투입해 벼 병해충 잡는다

정읍시가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돋기 위해 병제 약제를 지원한다. 희망 농가는 오는 2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 개인의 성장과 지원을 넘어 가족단위의 정서적 안정과 지원체계 강화에 초점을 둘 것이다"며 "이를 통해 아동 성장의 기반이 되는 기정환경을 더욱 탄탄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급증하는 벼멸구와 깨씨무늬

고창군 '기업환경 체감도' 입지 우수

전국 6850개 기업
대상 설문 전북 유일
전국 톱10 포함

전북 고창군이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기업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공장 설립을 위한 '입지' 분야 우수지역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조사는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68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기업이 기업활동 과정에서 경험한 기초지자체 행정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바탕으로 창업·입지·행정 3개 분야의 우수지역 톱10을 선정한 것이다.

조사 결과, 입지 분야에선 규제 완화와 부지 활용 여력이 상대적으로 큰 지방 기초지자체 선호가 확인됐으며, 입지 톱10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고창군이 포함됐다.

앞서 고창군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5년도 기업 투자유치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해당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5개 분야 9개 지표를 종합 평가하며, 고창군은 인구 7만 미만 시군 그룹 1위를 차지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고창군은 기업 지원 체계를 고도화해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운영, 기업 애로 해소율 79%를 기록했으며, 주여건 개선을 페기지로 묶은 원스톱 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성장 성과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군은 법적 근거가 없는 '보이지 않는 규제' 16건을 발굴하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고창 신활력산업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감면

12월 31일까지 50% ↓

고창군이 농가 경영난 해소와 농촌 활력도를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올해 말까지 전격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임대료 감면 혜택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농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전망이다.

이번 연장 조치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수확량 감소와 지속적인 농산물 가격 하락, 고질적인 일손 부족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고창군은 임대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겠다는 방침이다.

임대료 감면 연장에 따라 고창군 농업인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보유한 전 기종을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이번 정책이 농가 부채 상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기계화 영농을 통한 작업 효율성 증대로 이어져 지역 농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이번 감면 연장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농기계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용 전 안전 점검과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 사고 없이 안전한 영농 활동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장애인 재활센터, 이용자 호응도 ↑

전문 재활 서비스 제공

김제시 장애인 재활센터는 지역 장애인들의 신체기능 회복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장애인 재활센터는 지역 장애인 및 예비 장애인들의 신체 기능 회복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총 3,882명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새만금 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신형만을 기본계획에서 배제하고 배후부지를 타지자체와 연계 개발하려는 편파적인 MP 재수립안의 문제점을 짚어 꾹꾹 눌러댄다. 특히 새만금 특위는 오는 2월 13일까지 20일간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의원과 시민연대 위원이 2인 1조로 참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전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시위는 출근 시간대에 진행되며, 새만금 신항의 MP 유지를 촉구하는 김제시의회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시위장을 확장해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행정을 바로잡고 지역의 정당한 권익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앞으로도 결의문 발표와 언론 대응 등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지역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인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또, 신체적인 장애로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가정에서 센터까지 차량으로 이송 지원하는 원스톱 장애인 재활 이동지원도 병행해 이용률을 높이고 있다.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재활 건강관리사업도 실시해 1:1 맞춤형 재활운동, 행태개선, 심리지원, 건강체크 및 지역사회 지원연계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재활센터를 거점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신체 기능 회복을 앞당기고 일상생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장애인재활센터로 문의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민원과, 병오년 새해맞이 친절 교육

공감·소통 행정 정착

부안군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15일 민원과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직원들은 새해 친절 모토인 '한 걸음 더 가까이, 한 번 더 감동을'과 이달의 친절 문구인 '문턱은 낮게, 친절은 높게!'를 복창하며 친절 실천을 다짐했다.

교육은 행정안전부의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2025년 12월)을 바탕으로 전문성, 예절, 소통을 의미하는 민원 응대 3대 기본원칙(3C)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군민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정 서비스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이러한 친절 문화가 전 부서로 확산돼 민원 서비스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스스로를 낮추고 민원인에게 먼저 다가가 소통하는 마음을 갖춘다면 군민이 느끼는 감동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새만금개발청 편향 바로 잡겠다"

새만금특별委, 새만금 신항 MP 재수립 유지 위한 행보

김제시의회(의장 서백현)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경)가 새만금신항을 새만금 기본계획(MP)에서 제외하려는 새만금개발청의 시도에 맞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특히는 지난 16일 오전 11시, 제29회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인 지난 15일 새만금개발청 정문 앞에서 열린 '규탄 결의대회'에서 확인된 김제시 19개 읍·면·동 주민들과 시민연대 등 500여 명의 열원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전날인 지난 15일 새만금

개발청 정문 앞에서 열린 '규탄 결의대회'에서 확인된 김제시 19개 읍·면·동 주민들과 시민연대 등 500여 명의 열원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새만금 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신형만을 기본계획에서 배제하고 배후부지를 타지자체와 연계 개발하려는 편파적인 MP 재수립안의 문제점을 짚어 꾹꾹 눌러댄다. 특히 새만금 특위는 오는 2월 13일까지 20일간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의원과 시민연대 위원이 2인 1조로 참여하는 '릴레이 피켓 시위'를 전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 시위는 출근 시간대에 진행되며, 새만금 신항의 MP 유지를 촉구하는 김제시의회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시위장을 확장해 새만금개발청 앞에서 행정을 바로잡고 지역의 정당한 권리와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앞으로도 결의문 발표와 언론 대응 등을 통해 새만금 기본

계획 재수립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지역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인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제6기 SNS 축제 서포터즈 모집

30일까지 접수 3월부터 활동 예정

부안군은 오늘부터 30일까지 부안의 대표 축제를 홍보할 제6기 부안군 SNS 축제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30명 내외로, 부안 축제에 관심이 많고 SNS 활동이 활발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오는 3월부터 '제13회 부안마실축제'와 하반기 '2026 부

안군 마실축제' 기간을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축제 프로그램, 일정, 현장 등을 생생한 콘텐츠로 제작해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활동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0만 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지원 희망자는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자체 심사를 거쳐 2월 4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소상공인 정책설명회 첫 시도 '성황'

정책 사각지대 해소 현장 체감도 제고

김제시는 지난 16일, 지평선 문화축제 발전소에서 관내 소상공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정책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상공인들이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특히,

시를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김제경찰서 등 총 5개 기관

이 함께 참여해 관계기관 협동 설명회로 진행함으로써 정책의 이해도와 실효성을 한층 높였다. 설명회에서 △김제시 소상공인 3-STEP(창업·성장·위기극복) 단계별 10대 주요 지원사업 안내 △정부 및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 사업 소개(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지원, 경영 컨설팅 등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제도 설명회는 소상공인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첫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궁금증을 즉석에서 해결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운영해 참가자들로부터 "분산돼 있던 정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농촌지원분야 시범사업 신청

2월 6일까지 신청·접수

김제시는 2026년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는 2월 6일까지 농촌지원분야 농촌지도사업 7개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1월부터 2월까지 본격적인 사업화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가치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2월 6일까지이며,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단체) 및 법인은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향상 지원, 농업인 재해 안전마을 육성,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으로

집약화, 상당수 기관과 협력하는 협력체계 구축 등 7개 사업에 대해 신청·접수된다.

사업 선정은 현지조사, 발표조사, 태

당성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2026년장애인 개인 예산제 설명회' 성료

고창군이 지난 15일 고창군보훈회관 1층 다목적실에서 '2026년장애인 개인 예산제 설명회'를 열고 제도인枳와 운영방안을 설명했다.

설명회에는 읍·면주민행복센터 팀장과 담당자,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복지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와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 등 총 3명이 방문해 제도 설명을 진행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 총 4개 바우처 중 본인 바우처 금여량의 20% 내를 개인 예산으로 전환, 개인별 이용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오늘 오후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농기계 면허·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신청자 접수

남원시 66억 투입 축산약취 개선 총력

가축분뇨 시설·약품 지원 확대

민원 잦은 지역 중심 역점 추진

축산농가 30% 깨끗한 농장 목표

남원시가 축산냄새를 줄이고, 폐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66억원을 투자해 축산약취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약취저감 약품 지원, 가축분뇨 이용·운송처리비 지원, 약취증점농장 컨설팅 축산현장에 꼭 맞는 사업들이 포함된다.

함했다.

특히, 축산약취개선사업(19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18억원), 축산용미생물제 보급 지원사업인 에코프로바이오틱스이용 활성화사업(19억원) 등 축산분야 모든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폐거를 이끌어 냈다.

남원시는 주민들의 축산약취에 대한 민감도 상승과 귀농귀촌 증가로 주거지와 축산시설이 가까워지면서 약취민이므로, 축산농가와 함께 적극 노력하여 깨끗한 축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농가의 30% 이상을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확대해 나가고, 축산냄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농장 10여곳을 대상으로 약취관리 수준 진단을 통해 농장주의 개선의지를 높이고, 냄새 민원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축산약취 개선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축산농가와 함께 적극 노력하여 깨끗한 축산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김관영 전북도지사, 순창군 방문 ‘도민과의 대화’

군민 400여명과 도정 비전 공유
군의회·장애인복지관 방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해를 맞아 지난 16일 순창군을 방문해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과 도정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전경성(挑戰竟成)’의 처음과 끝, 도민과 함께 여민유지(與民由之)라는 주제로 마련된 이번 방문은 주요 도정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첫 일정으로 순창군청을 찾은 김지사는 최영일 순창군수와 공무원들의 환영 속에 순창군의회를 방문해 최영일 군수, 순종석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도정 운영 방향과 순창군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후 장애인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겨 관람을 비롯 시설 관계자와 이용자들을 격려하고 주요 사업 현황을 청취했으며, 시설 이용자들과 도자기 핸드페인팅 체험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6일 순창군을 방문해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지역 현안과 도정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전북도>

이어 군민예술회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김지사는 순창군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함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순창군민들은 △인계신조(군도 2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의사 채용 지원, △유기동물 관리체계 지원, △청년월세 개선 및 취업 멘토링 확대 등을 건의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순창군민들은 △인계신조(군도 2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의사 채용 지원, △유기동물 관리체계 지원, △청년월세 개선 및 취업 멘토링 확대 등을 건의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장애인복지관으로 자리를 옮겨 관람을 비롯 시설 관계자와 이용자들을 격려하고 주요 사업 현황을 청취했으며, 시설 이용자들과 도자기 핸드페인팅 체험을 함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완주군, 한국형 퀵스타트 연계 일자리 매칭 ‘성과’

DH테크노밸리 현장면접 진행
6명 교육 후 정규 채용 합격

완주군이 지역 투자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주진한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 연계 일자리 매칭데이’를 통해 6명의 구직자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일자리 매칭데이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주)DH 테크노밸리지점의 인력 채용을 전제로, 최근 해당 사업장에서 열렸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지점 퀵스타트 참여 인력으로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인사담당자가 직접 참여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했으며, 면접을 통해 선발된 6명은 (주)DH 테크노밸리



진안군, 군민들과 함께 2026 도민체전 성공 기원

진안군에서는 2026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및 제20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읍·면·연초방문과 연계하여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군민들과 함께 힘찬 발걸음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각 읍·면 주민들에게 2026년 도민체전에 대한 홍보와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도민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진행했다.

읍·면 연초방문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홍보 피켓을 활용하여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이와 함께 읍·면에 전달된 대회 공식 마스코트인 빠미야와 월랑이를 활용한 경기 종목별 캐릭터를 11개 읍·면에 배치하여 올해 9월 도민체전 개최 시까지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홍보를 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생태치유 진안에서 하나되는 전북도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6년 전북도민(장애인체육)의 성공적인 개최와 2만여명의 선수단 및 관계자 맞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11월에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현재 종목별 경기장 안전관리, 자원봉사, 교통, 의료지원 등 각 분야에 빈틈없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 덕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정기총회…봉사활동 강화 다짐

임실군 덕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임이택)는 지난 14일 덕치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새마을지도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는 지난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사회봉사활동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와 연말 결산을 진행하고, 향후 봉사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는 사회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불우이웃돕기와 노인 공경 실천은 물론, 면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총회에서 임이택 회장은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를 하는 자세로 활동하며 새마을정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순 덕치면장은 “늘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덕치면 공동체의 든든한 베풀목이 되어주고 있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역할을 기대하며, 면에서도 항상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고원 치유숲 직원일동, 장학금 100만원 기부

진안고원 치유숲 직원들이 지난 16일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준성)에 기부금 1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김종환 부센터장은 “지역의 희망인 학생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잊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뜻을 모았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지역을 빛낼 희망인 인재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이에 전준성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장은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진안고원 치유숲 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전달해주신 정성은 지역인재들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데 소중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농식품 바우처 청년층까지 확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만 34세 이하 포함

지원 기간 12개월로 연장

무주군은 올해 ‘농식품 바우처(카드)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기존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서 청년층(만 34세 이하)이 포함된 가구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저소득 청년들의 식료품 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먹거리 복지의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해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용권 지원금은 월 4만 원(1인 가구)부터 최대 18만 7천 원(10인 이상 가구)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박은석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장은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 계층 국민들이 신선하고 균형 잡힌 농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이라며 “소급 지원이 되지 않는 만큼 대상 가구들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 카드 사용자는 농식품 이용권 통합 플랫폼(www.foodvouch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자동응답 전화(1551-0857), 온라인(www.foodvoucher.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무주군은 올해 농식품 바우처(카드) 지원 외에도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심 외식비를 지원하는 사업(1인당 월 4만 원)도 추진한다.

/무주=최의호 기자

무주군, 장애인 체육 활성화 본격 추진

예산 전년 대비 1억 3천만원 증액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완전 분리

무주군이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장애인체육회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도 전년 대비 1억 3천3백만 원이 증액된 3억 2천8백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무주군은 기존 9개 장애인체육 관련 사업에 더해 △장애인체육 교실 지원, △종목별 장애인 체육 대회 지원, △한마음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장애인 체육상 시상식 지원 등 4개 신규 사업을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무주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을 무주군체육회에서 완전히 분리해 운영함에 따라 장애인체육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은 총 3

명으로 구성되며, 종목별 장애인 경기 단체 관리와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전반을 전담하게 된다.

박영석 무주군청 시설체육운영과장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는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통합사회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장애 군민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교

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체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농업 창업·주택구입 융자 지원…신청자 모집

오는 2월 4일까지 모집

진안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 융자 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관내 귀농인,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 등에게 농업창업(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등) 및 주택구입(신축, 자기 소

유·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마련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65세 이하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진안군으로 전입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아야하며, 귀농·영농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층면접을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추진

농업인 1,250명 대상 교육 실시 19일부터 읍·면 순회교육 시작

임실군은 지난 13일부터 내달 9일까지 14일간 총 20회에 걸쳐 관내 농업인 1,250명을 대상으로 읍·면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장에서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인들의 새해 영농계획 수립과 한 해 농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돋기 위에 마련됐다.

특히 농업인 교육 수요가 가장 높은 벼 재배 기술을 중심으로, 지난해 영농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해결 방안과 고품질 벼 안정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 농가 경영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임실군농업기술센터 자체 강사진이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실시한다. 올해는 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에 따라 농업 미생물 활용 교육을 신규 편성했으며, 이와 함께 스탄소중립 실천운동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농약 안전 관리 △농작업 재해 예방 안전수칙 △영농부산물 처리 요령 등을 교재에 수

선정된 대상자들은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연 2%의 대출 금리로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전준성 진안군수는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을 더욱 확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은 지난 13일부터 내달 9일까지 14일간 총 20회에 걸쳐 관내 농업인 1,25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내한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농업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구·개발된 신기술을 신속히 보급해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 소장(천소영)은 “올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품목별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 전달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총 관리 요령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 소장(천소영)은 “올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품목별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 전달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군은 지난 13일부터 내달 9일까지 14일간 총 20회에 걸쳐 관내 농업인 1,25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내한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농업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구·개발된 신기술을 신속히 보급해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임실군농업기술센터 소장(천소영)은 “올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품목별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 전달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농작업 안전컨설팅 참여 농업인 모집

현장 맞춤형 안전 진단

농작업 재해 예방 안전의식 향상

장수군은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재해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할 농업인을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농작업 외에도 농업 경영 체계에 있는 농작업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할 농업인을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농작업 외에도 농업 경영 체계에 있는 농작업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할 농업인을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농작업 외에도 농업 경영 체계에 있는 농작업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할 농업인을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농작업 외에도 농업 경영 체계에 있는 농작업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할 농업인을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농작업 외에도 농업 경영 체계에 있는 농작업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할 농업인을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농작업 외에도 농업 경영 체계에 있는 농작업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할 농업인을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농작업 외에도 농업 경영 체계에 있는 농작업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할 농업인을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농작업 외에도 농업 경영 체계에 있는 농작업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할 농업인을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농작업 외에도 농업 경영 체계에 있는 농작업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할 농업인을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농작업 외에도 농업 경영 체계에 있는 농작업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할 농업인을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올해 농작업 외에도 농업 경영 체계에 있는 농작업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작업 안전·보건 관리체



정읍 수성동 일광사,
장학금 200만원·백미 쾌척

정읍시 수성동에 위치한 포교사찰 일광사(주지 승천스님)가 지난 16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정읍시민장학재단에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정읍시청에서 열린 기탁식에서 일광사는 장학금 전달뿐만 아니라, 이웃사랑을 위한 백미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하며 부처의 자비를 몸소 실천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일광사는 지난 2017년과 2023년에도 각각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승천 스님은 “지역의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과 지역사회에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나눔과 자비 실천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제 용지면 임상교회,
취약계층에 100만원 기탁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임상교회가 지역 내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임상교회 신도들이 매월 소액을 정기적으로 모금해 마련한 것으로, 평소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한종욱 장로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내 소외된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나눔 봉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선화 용지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진달받은 성금은 도움이 필요 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임상교회는 지난 2018년도 이후부터 꾸준히 기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가정들의 학업 및 생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주)데코산업, 익산시에 장학금 1,000만원 기탁

청소년들 꿈 응원하는 나눔

익산시에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시는 지난 16일 '(주)데코산업'으로부터 '청소년희망나눔프로젝트'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

청소년희망나눔프로젝트는 저소득층 청소년 가운데 성적 우수자와 특기 적성·직업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자원과 연계해 맞춤형 교육 서비스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해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익산시 특수시책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는 지난 16일 '(주)데코산업'으로부터 '청소년희망나눔프로젝트'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



진안 주천면 고윤재 씨,
대를 잇는 이웃사랑 실천

진안군 주천면(면장 김종길)은 지난 15일, 구암마을에 거주하는 고윤재 씨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단순한 성금 전달을 넘어 ‘대를 잇는 나눔’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동안 고윤재 씨의 부친인 고영성씨는 평소 깊은 애향심으로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왔으나, 최근 연로해짐에 따라 아들인 고윤재 씨가 그 뜻을 이어받기로 한 것이다.

고윤재 씨는 성금을 전달하며 “추운 겨울을 힘들게 보내고 계실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어 기쁘고, 우리 지역의 나눔 문화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희망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남원시 김태령 어린이, 생일마다 이어지는 따뜻한 나눔

2024년부터 3년째 나눔 실천

지난 16일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김태령 어린이가 3년째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령 어린이는 2024년 아동 2명에게 각각 50만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자신의 생일을 맞아 기부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도 생일을 기념해 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금은 아동과 부모님의

뜻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 대상 프로그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태령 어린이와 그 부모님은 “생일을 맞아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전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김태령 어린이의 기부는 단순한 금액을 넘어서 나눔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전하는 큰 울림이 있다”며 “이러한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시민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평강채씨 야수공 종중,
부안군에 성금 50만원 전달

부안군 줄포면은 평강채씨 야수공 종중(회장 채봉석)은 지난 15일 줄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부금 50만원을 전달했다.

평강채씨 야수공 종중은 오늘날 ‘남당회맹단’이라고 불리는 의병을 창의하고 전라도 고창과 부안에서 왜적에 맞서 싸운 기문이며 임진왜란 때 의병장 채홍국은 지금도 지역을 대표하는 의병으로 기억되고 있다.

평강채씨 야수공 종중 관계자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나눔이 겨울철 추위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에게 희망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장수 장계면지사협, 나눔 감사의 밤 행사 개최

김문철내과의원에 감사패 전달

장수군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 장계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에 봉사와 후원을 지속해 온 단체 및 후원자를 초청해 ‘나눔 감사의 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복지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곳곳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후원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오랜 기간 변함없는 나눔을 이어오며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한 김문철내과의원(원장 김문철)이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임재성 장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앞으로도 협의체는 민·관이 함께하는 복지 협력을 통해 나눔 문화가 지역 전반으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성마리오농장, 순창군에 흑염소 진액 기탁

3천만원 상당 흑염소 진액 기탁

(주)농업회사법인 성마리오농장(대표 김바오로)은 최근 순창군청을 방문해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3천만원 상당의 흑염소 진액 219박스(3,022만 원 상당)를 농업회사법인 성마리오농장에 기탁했다.

성마리오농장은 경남 고성군에서 건강기능 식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4년째 꾸준히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김바오로 대표는 “추운 겨울철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이 올겨울 건강을 잘챙기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는 성마리오 농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기탁의 뜻을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인사

농촌진흥청 인사발령(2026년 1월 16일 자)

▲ 차장 김상경

▲ 국립농업과학원장 성제훈

▲ 국립식량과학원장 김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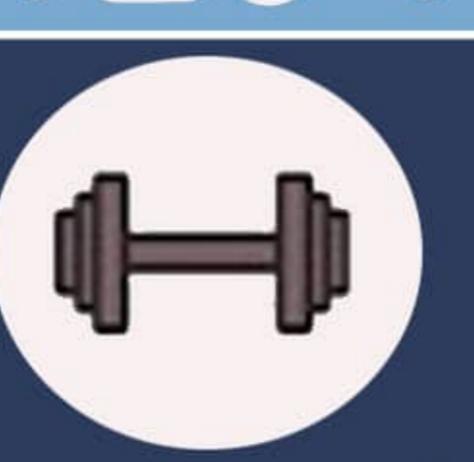
겨울철 야외 활동시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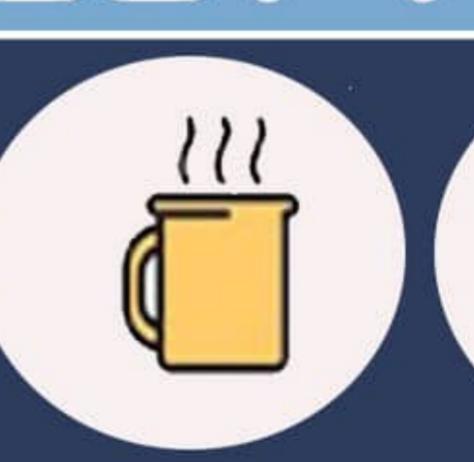
기상청, 날씨 앱
등으로 사전에
기상정보 파악 하기



얇은 옷 여러벌을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하고, 보호 합니다



활동전 준비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이고
근육이완을 합니다



따뜻한 물을
충분히 섭취
합니다



핫팩을 가지고
다닌다.

〈一事一言〉



K-AgTech로 여는 전북 농업의 플랫폼 대전환

김관춘
주필

지난해 연말, 김창길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전북연구원이 주최한 한 포럼에서 “에그테크(Ag-Tech)를 통해 농업의 플랫폼 전환을 선도해야 한다”는 제안을 해 주목을 받았다.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불안, 농업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생산비 상승과 수익성 악화가 동시에 밀려오는 오늘의 농업 위기는 더 이상 부분 처방이나 단기 대책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 전환이 요구되는 이유다.

김 전 원장은 전북연구원이 주최한 ‘백년포럼 43강’에서 이러한 농업 위기의 본질을 짚으며 해법으로 에그테크 중심의 플랫폼 농업 전환을 제시했다. 김 전 원장은 “AI는 에그테크의 두뇌이고, 에그테크는 AI가 작동하는 몸체”라고 표현하며, 두 요소가 결합될 때 농업 혁신의 속도와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글로벌 농업 선진국들은 이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예측 농업, 맞춤형 생산과 유통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전북의 에그테크 전환은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증하며 확산시키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농업 데이터의 공공적 축적과 개방, 지역 단위 실증단지 조성, 스마트 업과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 구축 등은 플랫폼 농업으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특히 생산 현장에서 축적되는 토양·기후·생육·유통 데이터가 민간 혁신과 결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에그테크 전환은 농업 소득 안정과 직결되어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술 도입이 비용 부담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단

이라고 규정하며, 기존의 시설·장비 중심 농정 패러다임이 디지털·AI 기반 구조로 이동하지 못한 점을 한국 농업의 한계로 지적했다. 그는 특히 AX(AI Transformation)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X는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산업과 조직의 운영 방식,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전환을 뜻한다.

김 전 원장은 “AI는 에그테크의 두뇌이고, 에그테크는 AI가 작동하는 몸체”라고 표현하며, 두 요소가 결합될 때 농업 혁신의 속도와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글로벌 농업 선진국들은 이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예측 농업, 맞춤형 생산과 유통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전북의 에그테크 전환은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수준을 넘어,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증하며 확산시키는 모델이 되어야 한다. 농업 데이터의 공공적 축적과 개방, 지역 단위 실증단지 조성, 스마트 업과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 구축 등은 플랫폼 농업으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특히 생산 현장에서 축적되는 토양·기후·생육·유통 데이터가 민간 혁신과 결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에그테크 전환은 농업 소득 안정과 직결되어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술 도입이 비용 부담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단

계별 지원과 성과 공유 구조를 마련하고, 청년 농업인과 기술 인재가 전북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병행돼야 한다.

전북이 에그테크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과 환경 지속가능성,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면, 이는 농촌 소멸을 막는 실질적 해법이자 국가 농정 전환의 선도 사례가 될 뿐 아니라 결국 전북의 선택과 실행력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 좌표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북은 국내에서 가장 유리한 출발선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된다. 김제·남원·장수를 잇는 스마트농업 삼각벨트, 국가식품플러스터, 생명공학·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기반 등은 전북이 전국 최고 수준의 농생명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 구도 속에서 AX 기반 연구·실증 거점으로도 도약 잠재력도 충분하다.

더 나아가 에그테크를 단순한 시범사업으로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농업의 플랫폼 전환을 이끄는 국가적 실험장이 될 것인가. 구조적 전환의 골든타임은 길지 않다. 전북이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농업 혁신을 선도할 때, 농업 위기는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을 좌우하는 새로운 공공 인프라다.

그러나 과제 역시 분명하다. 고령 농업인의 기술 수용성 한계, 데이터 표준화와 AI 실증 기반 부족, 민간 투자와 소프트웨어 중심 생태계의 취약성을 반드시 넘어야 할 장벽이다. 기술이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면 혁신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업인을 부담의 대상이 아니라 플랫폼의 핵심 참여자로 끌어들이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김 전 원장은 전북형 애그테크 AX 비전으로 ‘데이터·AI 기반의 지속 가능한 농생명산업 전환 허브, 전북’을 제시하며 △데이터·AI 기반 혁신 △기후스마트·탄소중립 농업 △인재와 기술이 순환하는 혁신 생태계 △민간 투자와 시장 연계 강화라는 4대 전략을 강조했다. 이는 농업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제 전북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애그테크를 단순한 시범사업으로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농업의 플랫폼 전환을 이끄는 국가적 실험장이 될 것인가. 구조적 전환의 골든타임은 길지 않다. 전북이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농업 혁신을 선도할 때, 농업 위기는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전북이 이러한 변화를 선도한다면 농업은 더 이상 낙후 산업이 아닌, 기술과 인재가 모이는 전략 산업으로 재인식될 수 있다. 플랫폼 농업은 곧 농업의 미래 경쟁력

결정은 끝났다, 2036 올림픽은 전북 전주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가 전주와 전북으로 결정된 지 1년이 되어 간다. 대한체육회는 2025년 2월 28일 대의원총회를 통해 전북 전주를 유치신청 도시로 최종 확정했고 표결 결과는 전북 49표, 서울 11표라는 압도적 차이였다.

이는 특정 지역의 이해를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계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충분한 검토와 토론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타당성 모두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불변의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단체와 개인이 ‘서울 유치’를 다시 거론하며 전북 유치를 흔들고 있다. 일부 종목을 기준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 등 타지역에서 분산 개최하는 방안을 두고 ‘지방 도시의 한계’로 자인이라 편웨이하고 이를 근거로 서울 대안론을 거론하는 행태는 언어로도 가깝다.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제시한 ‘올림픽 어젠다 2020+5’의 핵심 정신조차 이해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IOC는 이미 대규모 신설 경기장과 과도한 재정 투입을 지양하고 기존 시설 활용과 분산 개최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전북 전주의 유치 전략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충실히 반영해 저비용·고효율, 지역 간 연대라는 3대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전북 32개 종목을 중심으로 서울·경기·광주·대구·대전·충청·호남권까지 연계하는 분산 개최 구상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모델을 세계에 제시하는 강점이다.

그런데도 일부에서 이를 문제 삼아 서울 유치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체육회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해봉원목조석가여래삼존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물, 목조, 불상
-지정일 - 2001년 9월 21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 익산시 군익로 11길
29-11 (모현동 1가)



JBT 전북타임스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창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월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강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군산지국 010-9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충청지사 010-9678-4271	임실지국 010-2285-3987	부안지국 010-7247-3947
인구지사 010-8640-6855	완주지국 010-9560-3075	고창지국 010-2258-3734
제주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진안지국 010-2433-1721
송천지사 010-5242-3694	장수지국 010-8626-6049	원주지국 010-3672-0308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오늘의 시

아직과 이미 사이 / 박 노 해

아직과 이미 사이
아직에 절망할 때
이미를 보아
문제 속에 들어 있는 딥안처럼
겨울 속에 들어찬 햇 봄처럼
현실 속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들을 보아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기 위해선
먼저 하리 힘혀 흙과 뿌리를 보살피듯
우리 곁의 이미를 품고 길리야 해
저 아득하고 머언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닮고 싶은 좋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어야 해

시인 악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16세에 상경
해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
‘다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

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내서 밀리언셀러가 됐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
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DJ 정부때 특별 사

면으로 7년여 만에 출소했다. 이후 민주화운동 유
공자로 복권되었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했다. 옥
중 에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을 출간했다.

진실을 전하는 힘 전북타임스



<https://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 5층



[2026년 남원시정 신년설계]

남원 대도약 위한 드라이브 '시동'



민생 회복 '최우선' 민생안정지원금 설 전에 지급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올해 첫 학기 시작 제2중경유치 행정력 집중 '경찰교육 특화도시' 실현 등

□ '민생회복' 최우선, 남원 대도약을 위한 국립기관 유치, 경찰교육 특화도시로 도약

민선 8기 4년 차로 접어드는 2026년 최경식 호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목표는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민생 회복'을 최우선 하는 것과 국립기관 유치를 통해 남원을 공공기관 거점 도시, '경찰교육 특화도시'로 빌드업시키는 일이다.

이를 방증하듯 시가 새해 가장 급선무로 추진한 일은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설명절 전에 지급한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2일부터 오는 2월 27일까지 7만 6,032명(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에게 1인당 20만원씩 남원사랑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로 민생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지원금 지급 이외에도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생활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인상을 유예하는 등 내수진작을 위한 각종 민생대책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원시는 중장기적으로 더 큰 남원의 도약을 위해 '국립기관 유치'에 사활을 거는 등 민선 8기 후반을 만족시킬 액션 플랜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그 일환에서 올해 남원시의 가장 큰 변화는 교육분야에서 시작될 듯 하다.

먼저 민선 8기 최대 성과로 꼽히는 '전북대 남원글로컬 캠퍼스'가 드디어 올해 첫 학기를 시작하면서 글로컬 커머스, K-엔터테인먼트 등 특성화 학부를 중심으로 250명의 대규모 청년 외국인 유학생 귀환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2027년 남원개교를 목표로, 올해를 정주여건·생활지원·국제화 기반을 완성하는 실질 준비의 해로 정하고 주요 사업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갖춘 '남원 글로컬 캠퍼스 지원 종합 추진계획'을 실행하며, 유학생 정주 지원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산업연계 교육 및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시민참여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 정주기반 확립과 지역 혜력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협력해舊 남원세무서 부지에 연면적 약 5,500㎡, 250명 규모로 연합형 행복기숙사 건립을 본격화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외국인 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도 구상하는 중이다.

더불어서 시는 올해 국립기관 유치에 더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먼저 제20대 대선 전북 지역 공약사업인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본 사업은 2028년까지 남원 종합 스포츠타운 일원에 총사업비 490억 원(국비)을 투입, 다목적 체육관, 체조 훈련장, 200명 수용 규모의 기숙사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로, 시는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 기본설계를 마쳤으며, 세부 실시설계와 용지 보상 절차를 병행하고 있다.

이로써 시는 2028년 1단계 개관까지 해당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 제2의 양지인 선수를 배출할 수 있는 국가대표급 유소년 양성 생태

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인 만큼,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후보지 분석 용역에 적극 대응하는 등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드론·바이오·곤충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민선 8기 4년 차에 접어든 남원시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계획은 더 무궁무진하다.

남원의 100년 먹거리로 위해 민선 8기 출범 때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해온 드론, 바이오, 곤충산업 등 핵심 과제가 올해 더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드론 산업의 경우, 그간 남원시가 국토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3년 연속 선정, 남원시 특성에 맞는 모델을 발굴하고 드론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론 산업 성장 기반을 갖춘 전국 최고의 인프라를 구축한 만큼 올해는 국산 우수 핵심기술을 활용한 드론 레이싱 대회 국제화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드론레이싱대회와 남원국제드론제전을 3년 연속 성공 개최해 힘입어 올해는 드론 제전을 시민 중심 체험형 축제이자 드론·로봇 산업박람회로 고도화하여 이를 통해 드론 관련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추진하고, 글로벌 드론스포츠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바이오 산업도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 기술, 기업,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차세대 식물 애초기술 및 표준화 개발사업' 추진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 등을 통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해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남원시가 올해 △민생 회복, 국립기관 유치△미래신성장 산업 육성△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강소도시 만들기 등 '5대 시정 핵심 과제'에 행정력을 총결집하면서 민선 8기 시정 대변혁을 완성하고 '더 큰 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실제로 남원시는 지난 2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시정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 자리에서 최경식 시장은 "민선 8기 시민 여러분과 함께 써온 사랑스러운 도전의 역사를 이제는 위대한 성공의 역사로 시민 여러분과 완성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저와 우리 시 전 공직자는 2026년, 8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민선 8기 대변혁의 남원을 완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전북대 남원글로컬 캠퍼스 추진, 국립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제 2중앙경찰학교 유치, 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2030년에 완공될 경찰수련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공공기관 거점도시 남원'으로서 더 비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남원의 변화와 혁신은 올해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남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 큰 남원의 대도약을 위해 올해 더 힘차게 뛰겠다"면서 새해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2026년 남원시정설계 밀그림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경찰수련원 조감도

운 조성(182억원)을 원활히 추진, 이로써 청년농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창업 정착을 유도, 지역농업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등 남원시 농업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계다가 2027년 가동을 목표로 하는 남원·순창 광역 소각시설의 폐열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천환경에너지단문' 조성사업도 본궤도에 오른 만큼 시는 지난 2025년 설계 공모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본 사업을 올 상반기 설계를 마친 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외부 관광객 유입과 생활인구 증대를 꾀하여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 정주여건 개선 통해 '살고 싶은 강소도시' 만들기

한편 남원시는 '살고 싶은 강소도시 남원 만들기'를 위해 올해 출산·교육·복지시스템 완성으로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띠는 변화는 임신·출산 환경의 획기적 개선이다.

먼저 남원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제로화'를 추진,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해 '아이 낳기 좋은 남원'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소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달빛어린이 병원 운영방식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 평일 야간 위주에서 주말과 공휴일 전일 진료체계로 전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365 일 언제든安心하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남원의료원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주하고 싶은 도시의 전제조건으로 꼽히는 '교육여건'은 올해 더 좋아진다. 실제로 올해 7월에 인재학당 '만인재'가 본격 개관할 예정으로 이로써 지역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시는 이와 연계해 '사교육 걱정 없는 학습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남원시는 교육부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196억 원을 투입해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학교복합시설' 도 조성, 동부권의 오랜 교육·체육 인프라 박탈감을 해소할 전망이다.

주거 안정 대책으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청년 만원주택 '피움하우스'를 208호까지 확대하고, 지리산 활력타운(87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58호) 조성 및 빙집 정비 사업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장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